



전주매일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첨단소재기업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 익산시와 함께 동우화인켐(주), (주)삼양사, (주)나노솔루션과 84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갖고 있다.

첨단소재기업 전북 투자 잇따라

도, 동우화인켐·삼양사·나노솔루션과 협력… 847억원 규모 투자 유치
반도체·정밀화학·이차전지 소재산업 집중 육성… 생산시설 등 고도화

반도체, 이차전지, 나노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군산시, 익산시와 함께 동우화인켐(주), (주)삼양사, (주)나노솔루션과 84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민 군산부시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김두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카츠다 노부유키 동우화인켐 부사장, 조영도 삼양사 상무, 김형열 나노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 본사를 둔 동우화인켐은 도내 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추가적인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북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삼양사는 국내 유일의 초순수 이온교환수지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군산공장을 신설해 반도체 및 정밀화학 산업의 필수 소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온교환수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양사는 이를 통해 국내 이온교환수지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전북이 첨단소재 공급망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노솔루션은 이차전지 전극 소재로 활용되는 탄소나노튜브 및 기능성 나노물질의 분산액과 응용제품을 개발·양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북대, KIST 전북분원, 전주대 등 지역 내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균형 잡힌 투자유치를 실현하며,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장은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생산시설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반도체, 정밀화학,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전북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김두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삼양사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투자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삼양그룹의 전체 투자 규모가 총 3,550억원에 달하며, 기 입주한 삼양이노켐(화학), 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온수지)와의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화학 및 이온교환수지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군산부시장은 "군산이 새로운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투자가 지역 내 연과 산업 발전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기업들이 군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익산부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이 익산의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소재 산업을 비롯해 지역 내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

전북 등 전국 시도지사들 “신속 추경 편성” 한목소리

시도지사협,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공동건의문 채택

김관영 도지사 “정부의 신속·과감한 재정 정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기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이 더욱 악화되며, 지역 민생경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향후 전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구제역 위기 단계 ‘주의’로 격상

전남 영암서 발생… 도내 유입 차단 위해 긴급 방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군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이동금지 명령, 긴급 백신 접종, 집중 예방 활동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시이동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달로 예정됐던

소·염소 53만6,000여마리 대상 백신접종을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앞당겨 진행한다.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 46개 반을 활용해 취약지역 도로변과 농장 주변을 집중소독하고, 공수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통한 임상·전화 예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종호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는 행사·모임을 자제하고,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